

2018년 3월 15호

글쓰기를 시작하기 위한 노트



윤태영,
<윤태영의 글쓰기 노트> (2014) 中



차 의과학대학교 학습지원센터

[40]

디테일은 최소한의 기본을 보장한다
자신만의 사실을 만들자

‘1월 1일, 일출은 7시 37분이었다. 나는 25분 전에 일어나 해변으로 차를 몰았다.’

‘이 정책으로 혜택을 받게 될 계층은 모두 전국에서 247만 5,700명으로 예상됩니다.’

정확한 숫자는 신뢰의 원천이 된다.

디테일은 최소한의 기본을 보장한다.

자신만의 사실을 만들자_____ 

[41] 글쓰기, 은근히 체력전이다 지구력을 키우자

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**마라톤**을 한다고 한다.
글을 쓰는 선천적 재능도 중요하지만
책을 한 권 정도 쓰려면 **지구력**이 필요하다.

작가는 글을 쓰는 동안 **여러 사람의 인생**을 대신 살아간다.
그러면서 **각자의 개성**을 묘사해야 한다.

책 한 권 정도 분량의 글에 도전한다면

오히려 서두르지 말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자



[42] 초고를 완성하면 수정을 하기 전에 여유를 갖자

주제는 잘 반영되어 있는가?
문단의 연결에 어색함이 없는가?
주장하는 바는 명확하게 부각되어 있는가?
사례로 든 예화나 수치들은 사실과 부합하는가?


시간을 가진 후에 전체의 구조부터 보자.

날말이나 표현은 그 다음의 일이다.

두루 점검을 하고 구체적인 수정작업을 시작하자 

[43] 비슷한 말, 반대말을 익히자 글이 맛깔스러워진다

마을에서 10분쯤 더 산길을 오르면, 산등성을 널찍하게 깎아 만든 제법 평평한 밭이 보이는데, 그 밭 한가운데 까무잡잡하고 아담하게 생긴 삼층석탑이 결코 외롭지 않게 오뚝하니 솟아 있다. 산길은 설악산 어드메로 길길이 뻗어 올라 석탑이 기대고 있는 등의 두께는 헤아릴 길 없이 두껍고 든든하다.

**다양한 낱말과 표현들이 활용된 글은 읽는 맛도 있다.
같은 뜻을 지닌 비슷한 낱말, 반대되는 낱말,
대구법을 학습하고 기억해 두도록 하자** 

[44] 핵심은 본론이다
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하자

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합니다.

저는 밥상에 숟가락만 놓았을 뿐입니다.

쓰는 글이 편지이든, 연설문이든
의례적인 이야기는 최소한으로 줄이자.
가장 빠른 길로 본론에 접근하자_____



[45] 독회 스트레스를 이기자 남에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 말자

글쓰기를 시작하는 사람들 가운데, 자신의 글을 남에게 보여 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더러 있다. 일기가 아닌 창작물이라면 **글의 목적은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려는 데 있다.**

자신의 글을 방어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 **무엇이 부족한가**를 스스로 파악하게 된다. 또 **자신의 글이 지닌 강점도**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.

키 기울여 듣되 절대 자신의 자존심을 꺾지는 말자.

**한두 차례 독회를 거치면 자신감이 배가될 것이다.
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독자이다** 